

CHAIRPERSON NOTE

체어퍼슨노트

2009.02.13 (통권235호)

경제 이슈

- 美 금융 안정 계획 발표
- 최근 국내 경기 위축 심화

경영 노트

- 긍정적인 생각은 조직을 춤추게 한다

사회 트렌드

- ‘막드’ 열풍과 경제불황
- 우뇌형 경제

차이나 리포트

- 중국의 농민 소득 증대 정책의 의미와 시사점

저널 브리프

- 교토식 기업의 철저한 위기관리 원칙

洗心錄

- 실패에 이르는 길: 강한 타성 (active inertia)

□ 美 금융 안정 계획 발표

- 미국 정부의 ‘금융 안정 및 회생 계획(안)’(10일)이 금융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가계 및 기업의 대출 부실 해소를 위해 발표됨
 - 개요 : 미국 재무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구제 금융에 2조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한다는 새로운 금융 안정 계획을 발표
 - 민관투자기금 : 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부실 자산 매입을 계획하고 있고 투입 규모는 5,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가 될 예정
 - 대출 촉진 : 소비자 및 기업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담보대출(TALF)의 지원 규모를 2,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로 확대
 - 금융안정신탁(FST) : 금융회사에 추가 자본 투입과 주택 압류 방지를 위해 500억 달러 투입도 이번 계획에 포함됨

- 하지만 금융 시스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이번 계획은 부실 자산의 가격 책정 문제, 민간 자금 유입의 어려움 등으로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최근 국내 경기 위축 심화

- 한국은행(12일)에 따르면 물가는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수요·생산·고용 등 경제 전 부문에 걸쳐 빠르게 경제 상황이 위축되고 있음
 - 물가 :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임금의 하향 안정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 저성장에 따른 수요 부진 등으로 오름세가 크게 둔화됨
 - 수요 : 내수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도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
 - 생산 : 제조업의 감산이 크게 확대되고 서비스업도 부진이 심화
 - 고용 : 내수부진 심화 및 수출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1월의 취업자수(계절조정전)는 전년동월대비 10만 3,000명이 감소

- 국내 경제는 세계 경기의 침체 확대 및 내수침체 등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 긍정적인 생각은 조직을 춤추게 한다

- 경제 한파 속에서 조직원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구성원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이 강조됨
 - 심리학의 ‘피글말리온 효과(Pygmalion Effect)’는 리더의 긍정적인 사고가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리더가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함
- 위기를 긍정적인 태도로 극복한 위대한 리더들

구 별	사 례 및 내용
로널드 레이건 (Reag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1980~1988년 사이 오일쇼크, 고인플레이션, 러시아와의 냉전 등으로 심각한 위기 직면 · 첫 번째 임기까지 실패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았지만 그의 긍정적인 사고와 유머를 통해 압도적인 결과로 재선에 성공
폴린 파월 (Powe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을 지냈던 그는 “리더십의 본질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달성하는데 있다”라며 긍정적인 사고 강조
넬슨 만델라 (Mandel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그는 27년간의 감옥 생활에서도 인종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긍정적인 사고로 온갖 고초를 극복
마이클 조던 (Jord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인 그는 매 게임 시작 전에 경기에 이기는 상황을 상상하며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 넣었음
아산 정주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故) 정주영 회장은 조선소를 짓지도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념 하나로 선박을 수주하러 그리스로 향함

<조선일보 2008.10.31>

- 기업 CEO는 조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여러 리더들의 공통점인 ‘긍정적인 사고’로 조직원들에게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어 넣어주어야 함
 - 지금 조직에 필요한 것은 효율적인 전략이나 충분한 자금보다는 구성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상징적인 리더임

□ ‘막드’ 열풍과 경제불황*

- ‘막드’란 ‘막장 드라마’의 줄임말로써, 복수·불륜·왕따 등 선정적 내용을 지니고 있어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를 말함
 - SBS 일일연속극 ‘아내의 유혹’과 KBS 2TV 월화미니시리즈 ‘꽃보다 남자’ 등이 예인데, 말도 안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방영할 때마다 거의 상종가를 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최근의 경제불황이 막드의 인기를 치솟게 하고 있다고 분석
 - 단순한 권선징악 스토리 구조와 빠른 이야기 전개가 경기불황에 찌든 시청자들의 마음을 대리만족시켜 주기 때문임
 -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요즘 시청자들은 우울한 내용보다는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감성이 두드러진 드라마를 선호
 - 여기에 최근 불황기를 맞고 있는 방송가에는 ‘막드만큼 대박상품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막드의 위세에 한몫하고 있음

□ 우뇌형 경제

- 미래학자 리처드 왓슨에 의하면, 지금 우리는 세 번째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는데, 바로 좌뇌형 경제에서 우뇌형 경제로 변화한다는 것임
 - 첫 번째 산업혁명이 농지를 공장으로 바꾸었다면, 두 번째 산업혁명은 육체노동을 정신노동으로 바꾼 것임
 - 지금까지의 시장경쟁력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능력에 의해 결정되었는데, 이는 전형적인 좌뇌의 역할임
 - 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조만간 사람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할 전망인데, 일부 국가에서는 손님이 콜택시를 호출하면 콜센터 직원이 아니라 컴퓨터가 전화를 받아 일을 처리함
- 높은 수준의 창의성과 상상력이 중요한 우뇌형 경제가 지배적이 될 것
 - 상품의 품질이나 기능성이 평준화되면서 ‘디자인’과 같은 예술적 요소가 중요해지고,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감성 지능을 요하는 일(간호사, 교사)이 각광을 받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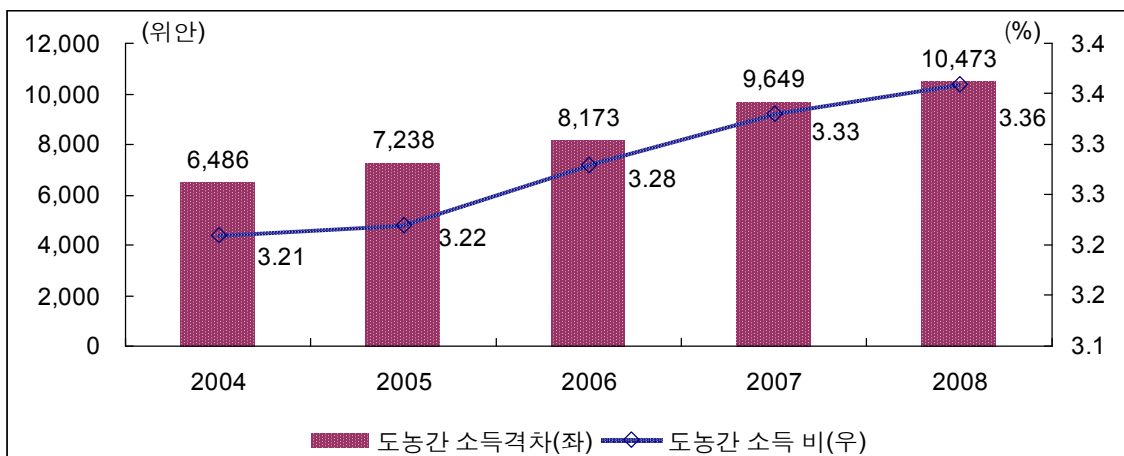
* 양정복, “막드 열풍과 경제불황”(서울경제신문, 2009.2.10) 참조

□ 중국의 농민 소득 증대 정책의 의미와 시사점

■ (개요) 2009년 들어 중국 정부는 6년 연속 중앙정부의 新年 첫 시행 문건에 '3농(三农)문제' 관련 내용을 담아 발표

- '三农'은 농업, 농촌, 농민을 지칭하는 용어로, 농업대국인 중국에 있어 '三农문제는'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침
- 고속 경제성장 과정에서 급속히 확대 된 도농 간 소득격차는 내수 확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사회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해결이 시급

< 중국 도농 간 소득 격차 추이 >



자료 : 중국 농업부, 중국 국가통계국.

■ (배경) 중국 정부의 농민 소득 증대 조치는 내수 부진과 농민공의 대량 실업 사태에 따른 사회불안 요인 가중 상황에 대처하기 위함

- 수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2009년 8%의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수확대 이외에는 방법이 없음
 - 인구의 60%가 넘는 농촌 주민의 구매력 부재로 중국은 수출 주도형 성장을 추구해 왔으나 금융위기에 따른 대외 수요 위축으로 수출이 급감

- 또한 기업 도산이 속출하면서 농민공의 대규모 실업사태가 사회 불안 요인을 가중시키고 있음
 - 2008년 농민공 실업자 수는 2,000만 명으로, 이는 전체 농민공의 16%에 달함

■ (주요 내용) 중국 국무원 제 1호 문건은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보조금 지급, 농산품 가격 인상, 농지경영권 시장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임

- 농업활동 종사 농민들에게 보조금 지급 확대
 - 보조금 지급을 전 작물(作物)로 확대하고 현대식 농기구 보급과 농업 기술 개발을 지원
- 농산품 가격 하락 방지책 강구
 - 농산품의 최저 수매가격을 인상하고 「북량남조(北粮南调)」와 신장(新疆)지역의 목화를 외부로 수송하는 데 따른 운송비를 지원 또는 감면
- 농지경영권* 유통 활성화 추진
 - 농지경영권에 대한 물권(物权)을 강화하고 양도, 임대 등 경영권 유통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농민들의 경제활동 영역과 기회를 확대
- 농촌지역의 금융 서비스 확대
 - 농촌지역에 특화된 중소형 은행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소액대출과 농촌의 소비자금융을 획기적으로 확대

■ (시사점) 중국의 농촌지역 소비 여력 증대에 대비해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과 마케팅 강화가 필요

- 중국 농촌지역의 특수를 잡기 위해 국내 기업들은 대도시 위주의 영업 집중전략을 중소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분산-균형 전략으로 전환 필요

* 중국은 전 국토 국유화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농민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경영권에 대해서는 양도, 임대 등 물권행사가 가능.

□ 교토식 기업의 철저한 위기관리 원칙*

- 철저한 위기관리로 불황을 이겨내는 교토식 기업의 노하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교토 내 기업들은 주로 부품소재 기업들로서 지역 경제 발전에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교토식 기업들은 채무를 극단적으로 회피하고 안정적인 성장에 주력하는 경영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특히 불황에 강한 특징을 보임
- 교토식 기업의 위기관리 키워드는 “리스크 분산과 미래 기술 선도”

< 교토식 기업의 위기관리 원칙 >

원칙	내용
가급적 최종 제품 시장에는 진출하지 않는다	· 시대에 따라 판매량이 급변하는 최종시장과는 달리 핵심부품기술은 경기변동에 덜 민감
기술은 철저하게 모듈화 한다	· 모듈 조합으로 새 부품이나 장치를 공급하도록 조치해 수요변화에 신속하게 대응
조직은 잘게 쪼개 수익 위주로 운영한다	· 개별 단위 조직으로 쪼개어 공정별로 비용을 관리하고 성과 및 경제성을 평가
특정 고객에 의존하지 않는다	·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아닌, 가능한 한 많은 고객과 거래하면서 개방적인 관계를 형성
세계 시장을 공략하라	· 내수시장 안에서만 활동하기 보다는 해외 시장을 공략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잘할 수 있는 곳에 집중하라	· 자신 있는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
잘나갈 때 다음을 준비하라	· 연구·개발 투자로 차세대 기술을 앞서 개발해 미래 기술 시장을 주도

- 경영자는 불황기에 위기관리에 대한 스스로의 원칙을 점검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시장을 주도하려는 의지가 필요

* 이 글은 『시사저널』 (2009.2.4)에 실린 글을 요약, 재구성한 것임

□ 실패에 이르는 길: 강한 타성 (active inertia)

한때 전세계 모든 경영자나 일반인들이 우러러보았던 기업들이 초라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빅3는 구제금융을 구걸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침이 마르게 칭찬하였던 도요타조차 최악의 실적표를 받아들고 대규모 감산과 감원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당면한 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고유가, 금융위기로 몰아가기에는 부족하다. 저연비 자동차의 문제는 1, 2차 오일쇼크 때 경험했는데도 약 20년 만에 몰락 원인으로 재등장하였다. 전통적인 자동차 비즈니스 모델은 이미 오래 전에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판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자기파괴의 자세 없이 기존의 성공을 바탕으로 좀 더 잘하면 되겠지 하고 버텨왔던 것이다.

영국 *Financial Times*지(2005.10.3)에 의하면, 실패한 기업들은 다음의 7가지 징후가 사전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들 실패 징후의 공통 키워드는 자만, 변화 무감각이다. 혹시 우리 회사도 과거 성공에 취해 자만하고 있는지,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지 반문해 보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1. CEO가 주요 경영 잡지의 커버에 자주 등장하는 기업
2. 유명 경영학자로부터 칭찬을 받은 기업 (톰 피터스가 *In search of Excellence*(’82년 출간)에서 칭찬하였던 43개 사 중 현존 6개 사)
3. CEO가 자사의 성공 사례를 책으로 내는 기업
4. 번듯한 새로운 사옥을 건립한 기업
5. 경영진이 동질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기업
6. 회사 이름을 딴 경기장이 등장한 기업
7. 주변에 경쟁업체가 모여 있는 기업 (주변에 동종업체가 몰려있는 경우, 서로 비슷한 전략과 행동양식을 모방하여, 변화하기 어려움)

“위기의 시기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한다.”

- 자크 아탈리(1943~) : 프랑스 미래학자 -